

“맛있고 재밌었다” 제16회 보성전어축제 성료

제철 전어요리 맛보러 인산인해
개매기장 전어잡기 체험 인기
전어 굽기 등 프로그램 다채
방문객 만족도 제고·주민 호평

보성군은 득량만 청정해역이 주는 선물, '전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제16회 보성전어축제'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5년의 기다림! 반갑다 전어야! 친구야 보성가자!'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축제는 회전면민회가 주최하고 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문종복)가 주관했다. 축제에는 출향향우, 관광객, 군민 등 3000여 명이 참가해 인산인해를 이뤘다.

개회식에는 김철우 보성군수, 문금주 국회의원, 문종복보성전어축제추진위원장을 비롯한 내빈들이 참석했다.

주요 행사로는 전어요리 시식회를 비롯해 전어 잡기, 전어 굽기 등 신나는 체험과 보성군립국악단 '판소리 한마당' 공

연, 초청 가수 축하공연, 관광객 어울마당, 전어 축제 노래자랑 등이 진행됐다.

특히 울포솔밭해수욕장에 설치된 개매기장에서 싱싱한 전어를 잡아보는 전어잡기 체험과 직접 잡은 전어를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구워 먹는 전어 굽기 체험은 '보성전어축제'의 백미로 관광객들에게 즐거운 추억을 선사했다.

전어 가격은 2인분 기준 2만원으로 시세보다 저렴해 '바가지 요금' 논란도 없었다.

보성군은 연일 높은 기온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축제장 인근 그늘막 설치, 살수차 배치, 얼음 및 물 구비와 더불어 인근 의료 부스 등 종합상황실을 운영했다.

또 식중독 방지를 위해 행사 부스 내 음식 판매점에 사전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결과 안전사고 한 건 없는 건강한 축제로 방문객의 만족도 제고와 지역 주민의 호평을 얻었다.

문종복전어축제추진위원장은“안전사고 없이 축제가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돼



득량만 청정해역이 주는 선물, '전어'의 참맛을 느낄 수 있는 '제16회 보성전어축제'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울포솔밭해수욕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보성군 제공

군민들과 관광객들께 감사드린다”며 “올해 부족하고 미흡했던 점을 개선해 내년에도 더 발전된 모습으로 찾아뵙겠다”고 말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황리에 축제를 개최한 문

종복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도 가족과 함께 보성에 들러 전어를 맛보고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광복 79주년 태극기 나무 조성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실천본부

여수 르네상스 시민운동 삼일동 실천본부(민간위원장 서길수, 이하 삼일동 실천본부)가 지난 14일 광복 79주년을 맞아 상암삼거리 나라사랑 무궁화동산에 태극기 나무를 조성했다.

르네상스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행사는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의 위업과 숭고한 독립 정신을 기리고, 국기의 소중함과 애국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로 마련됐다.

서길수 민간위원장은 “국경일마다 태극기를 게양해 순국선열의 희생을 기리는 문화가 점차 사라져가는 게 안타까워 마련하게 됐다”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분들에게 감사함을 잊지 말자”고 전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구례군, 한국·베트남 페스티벌 참가
해외 관광객 유치 홍보 활동

구례군은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2024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에 참가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다낭 한국-베트남 페스티벌은 다낭시와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공동 주최하는 지역 대표 축제로 올해 3회를 맞이했다.

특히 이번 페스티벌은 구례군의 우호 교류 도시인 다낭시 선짜군 동해공원 일대에서 진행됐다. 구례군과 선짜군은 올해 1월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두 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다방면의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방문은 다낭시 및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공식 초청을 받아 추진됐으며, 구례군은 구례의 다채로운 매력을 알리기 위해 호남여성농악단과 함께 축제에 참가했다.

호남여성농악단은 개막식 무대에 올라 흥겨운 농악 공연을 펼치며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군에서 운영한 압화 손부채 만들기 체험 부스에는 꽃으로 만든 이색적인 예술 작품에 매료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구례=김상현 기자



장흥군 안양면 달너울 작은 음악동호회 주체로 열린 '제53회 달너울 작은 음악회'가 지난 18일에 수문해수욕장 체육공원에서 진행됐다. 장흥군 제공

장흥 안양면, 여름밤의 낭만 '달너울 음악회'

장흥군 안양면 달너울 작은 음악동호회(회장 정일구)가 주최하는 '제53회 달너울 작은 음악회'가 지난 18일 오후 수문해수욕장 체육공원에서 열렸다.

지역 음악동아리들의 참여한 이번 음악회는 하모니카, 바이올린, 통기타, 색소폰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져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보름달이 비추는 해변에서 펼쳐진 음악회는 특별한분위기를 만들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낭만적인 밤을 선사했다.

정일구 회장은 “작은 음악회를 통해 무더운 여름밤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고 한 마음이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

란다”며 “앞으로도 지역민과 함께하는 소소하지만 따뜻한 음악회를 기획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달너울 작은 음악동호회는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도로 70여 명의 회원들이 2006년도에 구성하여 매년 3~5회의 음악회를 개최해 오고 있다.

올해 2회차 공연은 내달 17일, 3회차 공연은 10월17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장흥=김전환 기자

장흥군, 전국 최초 '황금사철 조형수목 재배' 성공

단일 품목 전국 최대규모

장흥군에서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임형완(52) 씨가 조경수목으로 주목 받고 있는 황금사철의 조형급 재배화에 성공했다.

부자나무 황금사철의 조형급 재배가 가능해지면서 임가소득 향상에 새로운 기회가 창출됐다는 평가다.

동근잎황금사철은 노박덩굴과 수목으로 서울, 경기에서도 생육이 가능하다.

독도에는 100년 넘는 수목이 있어 독도수호목으로 불릴만큼 염기에 강한 식물이기도 하다.

시중에는 은테사철, 황록사철, 금사철, 긴잎사철, 황금사철 등이 있으며 이

중 단연코 조경수에 유행을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은 동근잎황금사철이다.

노지에서 재배가 어려워 차광시설이 완비된 시설하우스로만 재배되며 판매를 위해서는 차광시설을 제거하면 햇빛에 의해 황금색으로 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임형완 씨는 조경수 시장에서 묘목로만 판매되는 사철나무의 한계를 극복해, 높이 2m, 넓이 2m의 조형급 수목을 생산해 냈다. 이를 위해 2미터 간격으로 나무를 식재하고 수목을 규격화 했다.

단일품목으로는 전국 최대규모로 어린묘목에서부터 배지를 이용한 양액재배에 이르기까지 시설하우스 6개소와 27만 평방미터의 재배단지를 갖췄다.

임 씨가 생산한 조형급 수목은 이달부터 1그루에 200여만원에 200여그루를 한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한 그루만 심어도 모든 수목을 압도하는 나무이다 보니 기념식수나 포인트목으로 인기가 높다

재배를 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다. 폭우로 물에 잠기기도 했으며 조형수목으로 재배하는 농가가 없어 혼자 연구하면서 시행착오도 겪었다.

임형완 씨는 “고생 끝에 생산 기반을 갖춰가고 있지만 희소성을 갖춘 조형급 사철나무는 앞으로 더 가능성이 높다. 재배를 위해 문의를 한다면 알고 있는 정보를 공유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용역
여수시, 1차 중간보고회

여수시가 지난 14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 여건에 맞는 '여수시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설정을 위한 연구용역 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경제·사회·환경 전문가로 구성된 여수시지속가능발전위원회(공동위원장 천상국, 이하 지속위)와 행정자문전담(TF)(단장 최정기 부시장) 30개 부서가 참석해 기본전략 초안을 검토했다.

이날 지속위는 용역사에서 제시한 지속가능발전 17개 목표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과 그에 맞는 행정의 역할을 제안하고, 관계부서의 의견을 취합·조정했다.

특히 지속위 위원들은 “지속가능발전 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단순명료한 목표를 세워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지속가능발전 세부 전략에 여수만의 특징을 고려해야 한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천상국 공동위원장은 “지속가능발전 목표에 따른 수치적 지표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행복도, 편의성 등 질적인 측면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다듬을 것”을 요구했다.

최정기 부시장은 “여수국가산단의 신산업 전환, 해양관광 활성화 및 수산업 경쟁력 제고 등 여수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역점사업에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목표를 잘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오는 10월에 예정된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여수시 20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마무리하고, 11월까지 5년 단위의 세부 추진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전남 국립의대 설립 주민공청회
내일 고흥문화회관에서 개최

고흥군은 전남 국립의대 대학병원 신설과 관련해 정부의 추진 용역 수행기관인 에이티커니코리아와 법무법인 지평컨소시엄이 주최하는 공청회가 21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열린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공청회에서는 용역사에서 공청회 진행 방법과 안건에 관해 설명하고, 국립의대 및 대학병원 설립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특히 이날 공청회에서는 고흥 군민뿐만 아니라 타 시군 거주자도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주최 측에서는 최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석자 누구에게나 발언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공청회 진행 중 발언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이나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현재까지 설립방식 선정위원회에서는 '단일의대+단일병원', '단일의대+복수병원(신설 2개소)', '단일의대+복수병원(신설 1, 기존 병원인수 1)' 등의 설립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추진 일정과 관련하여 주최 측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에서 충분히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로 구성된 설립방식 선정위원회 논의를 거쳐 8월 말에 확정안을 공포할 방침”이라며 많은 군민의 참여를 당부했다.

송민섭 기자